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12차시. 스마트폰과 저작권, 아이폰 탈옥이 불법일까?

1. 스마트폰 관련 저작권 문제

1) Apps(애플리케이션) 불법 마켓

유료 Apps(애플리케이션, 이하 앱)을 크랙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앱스토어에 등록된 유료 앱 중 무려 24%가 크랙되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Appulo.us나 앱4Shared 등의 사이트를 통해 유료 앱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유료 앱을 크랙해서 유통시키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2) 아이폰 탈옥과 안드로이드폰의 루팅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앱을 구하더라도 내 스마트폰에서 바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가 앱의 이용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외부에서 구한 앱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키는 소위 ‘탈옥’(jailbreaking)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애플이 승인한 앱만이 실행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탈옥을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앱도 실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탈옥이란 애플사의 아이폰(iPhone) 잠금장치를 해제(해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 사이에 여러 가지 잠금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잠금장치에는 한번에 여러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이나 특정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구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제한해놓은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 시스템 영역의 환경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탈옥입니다. 이로써 테마를 이용하여 바탕화면 설정도 바꿀 수 있고, 폴더를 만들거나 멀티태스킹을 하는 등 애플이 제한해 놓았던 작업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플이 승인한 앱만 실행되도록 한 제한도 풀 수 있게 되어 불법유통되는 앱의 실행도 용이해집니다.

애플이 아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기라면 루팅을 통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반이 된 리눅스 환경에서는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슈퍼유저(superuser)라고 하는데, 이 슈퍼유저는 루트(root)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전권을 가진 최고 권한의 계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팅은 이 루트 계정을 획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 역시 제조사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옥과 루팅이 불법일까요? 이는 자신의 물건을 해킹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따라서 루팅을 했다고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 저작권법을 관장하는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2010년 타 통신사를 이용하기 위해 탈옥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루팅과 탈옥에 대해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시(제2012-5호)를 통하여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를 제외)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프로그램간의 호환을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였습니다.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논의

아이폰 탈옥처럼 저작권자가 설정해 놓은 제한을 구매자가 해제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료 앱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제를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DRM을 해제하는 기술을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조치, 예컨대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30]

1) 도입 배경



저작권법에서 권리를 부여해줘도, 침해자를 찾아내고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거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처벌을 하려면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대량 이용 환경에서는 일일이 침해자를 찾아내서 저작권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제 방지 락을 설치하여 기술에 의한 저작권 보호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커들이 락을 크랙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제방지 기술을 도입했는데, 해커가 크랙하면 무용지물이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다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법에 의해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서 처음으로 DRM을 저작권적으로 보호하기 시작(명문의 규정 마련)
- 이후 미국의 DMC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등 전세계로 확산

2) 사례

플레이스테이션2 모드칩 사건(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피고인은 Sony사의 PS2 게임CD 타이틀을 판매하는 자인데, 2003. 6. 13. PS2에서 복제 CD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모드칩(일명 ‘블루메시아칩’)을 개당 35,000원을 받고 장착하여 주었다.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은 CD-Rom이나 DVD-Rom과 같은 저장매체에 의해 저장되어 판매되고, PS2 게임기 본체에서만 실행되는데, 정품 게임 CD에는 게임프로그램 이외에도 액세스 코드(access code)가 수록·저장되어 있고, PS2에는 부트롬(Boot Rom)이 내장되어 있어 PS2 게임기에 삽입되는 게임 CD에 액세스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한 후 액세스 코드 없이 게임프로그램만 저장된 CD는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게임 CD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액세스 코드의 복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불법으로 복제된 게임 CD로는 PS2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 모드칩은 액세스 코드가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액세스 코드 없이 게임프로그램만 복제·저장된 CD가 PS2 게임기에 삽입되더라도 PS2 게임기의 부트롬으로 하여금 액세스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 정품 CD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불법으로 복제된 게임

CD도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법원은 게임CD를 불법복제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모드칩을 장착해주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다.

기술적인 조치를 우회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만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프린터 생산자가 저작권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잉크 카트리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보려고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Lexmark Intern., Inc. v. Static Control Components, Inc.

프린터 생산자인 Lexmark는 경쟁자의 카트리지에 자신의 프린터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2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져오기 위해 카트리지의 칩에 인증 시퀀스를 적용하였다. Static Control Components는 이 DRM을 우회하여 해당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만들어 팔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권간에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